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1호 【루계 제25244호】 주체105(2016)년 4월 10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축 하 문

##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되고 조국땅우에 강성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립 60돐을 맞이하는 조선대학교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60년의 력사는 총련의 후대교육사업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하늘보다 높고 태양보다 따사로운 숭고한 동포애, 민족애의 력사이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민족교육사업을 위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헌신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 일본땅 한복판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를 세워주신 그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총련과 조선대학교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이 넉넉치 못한 속에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안겨지는 해외교포운동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위대한 사랑의 전설이 태여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대학교를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총련의 간부양성기지, 민족인재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여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고 조선대학교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총련의 동포자녀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우기 위하여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조선대학교의 학부와 학제, 과정안으로부터 대학에 갖추어진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동식물표본들에 이르기까지 교정의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우리 조선대학교의 창립자, 건설자이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스승이시며 조선대학교는 명실공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태여나고 성장하여온 수령님과 장군님의 대학, 공화국의 존엄높은 주체의 해외교포대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선대학교는 창립후 지난 60년간 민족교육의 최고전당, 과학연구의 중심, 민족성고수의 보루로서 총련의 조직건설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조선대학교의 교직원들은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은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연혁의 갈피마다에는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대학의 졸업생들, 학부형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애국충정과 헌신적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황금만능의 이역땅에서 누구나 쉽게 선택할수 없는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으며 일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로지 민족교육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총련애국위업의 바통이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것입니다.

세계에 유일무이한 해외교포대학인 조선대학교는 진정 우리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민족교육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민족교육의 화원을 가꾸는 원예사, 밑거름이 되여 조선대학교의 창립과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대학의 전체 교직원들과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오늘 조선대학교가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무겁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시대와 조국앞에 지닌 력사적사명과 본분에 맞게 모든 학생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골간으로,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움으로써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계속 떨쳐나가야 할것입니다.

충실성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은 조선대학교의 본태이며 생명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대학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대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모든 학생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청년핵심들로 억세게 키워야 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애국주의화, 과학화, 정보화하여 총련조직과 재일동포사회가 요구하는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청년핵심, 애국인재들로 키우자면 교수교양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부터 진짜배기혁명가, 참된 교육자가 되여야 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원들은 정치사상적, 과학기술적자질을 부단히 높여 교수내용의 정치사상성과 과학성, 실효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강의와 학과토론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교수를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걸머지고나갈 원대한 포부와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지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하며 날로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현실을 잘 알고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마음과 숨결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조선대학교 조청위원회에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5대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학생들을 신념이 투철하고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줄 아는 애국위업의 대들보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합니다.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입니다.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은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에서 이어진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학생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며 대학의 교육사업을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조선대학교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총련핵심육성의 원종장에서 자라나는 미더운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나는 조선대학교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총련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정 은**

주체105(2016)년 4월 10일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3돐을 맞으며 각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탁월한 선군령도로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뚫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여 공화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굽이쳤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70일전투의 청야진군에서 영웅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쓰르비아준비위원회가 3월 22일 베오그라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국제비서 마리안 꾸비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강연회, 토론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3월 22일 따쥐끼스딴 두샨베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해. 샤브돌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모임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로므니아전국준비위원회가 3월 21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끈쓰딴띤 로따루가, 서기장으로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씰레 레꺼쑤슈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모임, 토론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베루준비위원회가 3월 23일 리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따니 발레르로베라가, 부위원장 겸 서기장으로 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중앙경축모임, 토론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3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빼까 꼬르까싸리와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인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엑씨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 2 000여만kWh 전력 증산

###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70일전투의 청야진군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70일전투에 진입하여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일평균 113%로, 최고 130%이상으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지금까지 2 000여만kWh의 전력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2월과 3월에 이어 뜻깊은 4월에 들어와서도 높이 세운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의지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일군들부터가 주요현장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중을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현장조건에 맞게 벌리였다.

특히 전력증산의 기본고리인 보이라가동대수를 지난 시기보다 1.2배로 늘이고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거는데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전력생산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열생산직장과 타빈직장의 로동계급이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를 짓뭉개버리는 심정으로 호기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보이라가동시간을 늘여야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고열과 수증기로 하여 불리한 작업조건이지만 보이라의 승수판에 이상이 생기자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관교체와 용접작업을 짧은 시간에 해제끼고 보이라의 가동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타빈직장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한편 현행생산조건에 맞는 초기상태량을 최량화하여 같은 증기를 가지고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열설비보수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보이라대보수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냄으로써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기존관례를 깨뜨리고 수천개나 되는 설비, 부속들을 조립하면서 대보수를 앞당겨 끝냈다.

특히 많은 대상공사를 진행하는 속에서도 석탄부림기, 산소착화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지금 련합기업소에서는 뜻깊은 4월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승리의 5월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달리고있다.

전혜철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안고 쇠돌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은률광산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불타는 충정과 높은 실력으로 당을 받든 진짜배기혁명가

## 력사적인 첫 7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된 조세웅동지의 충실성에 대한 이야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오늘의 70일전투는 모든 일군들이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그 어느때보다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만리마시대정신을 창조, 창출하는데서 전위투사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력사적전환의 시기였던 197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혁명하는것을 한생의 더없는 영광으로 간직하고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 투쟁한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

그들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손락이 센 일군, 진짜배기혁명가라고 정답아 불러주신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이였던 조세웅동지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력사의 첫 70일전투를 총화하시면서 조세웅동지에게 이런 값높은 평가의 교시를 하시였다.

《동무는 이번 70일전투기간에 중앙지휘부를 책임지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밤그대로 간고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아프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나의 기대에 맞게 전투지휘를 잘하였습니다.》

1970년대 70일전투의 나날에 있은 조세웅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불같은 충정, 투철한 정신세계와 우리 일군들이 오늘의 거창한 전인민적총공격전에서 어떤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발휘해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준다.

### 변함없는 충신의 자세

우리 당력사에서 주체63(1974)년은 참으로 뜻깊은 해였다. 바로 이해에 우리 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력사적인 첫 70일전투를 계기로 비약의 억세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게 하였다.

조세웅동지는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능력있는 당일군으로, 유능한 경제실무가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성장의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주체63(1974)년 10월초 어느날이였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맡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세웅동지에게 70일전투중앙지휘부를 책임지고 일할데 대한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70일전투를 구상하실 때 벌써 조세웅동지를 생각하고계시였다. 로동계급출신으로서 손락이 세고 내밀성이 강할뿐아니라 남달리 혁명적원칙성이 투철한 그라면 능히 당중앙이 의도하고 작전하는대로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가리라는 확신이 가시였던것이다.

분에 넘치는 믿음과 기대를 받아안은 조세웅동지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업한지 몇달 안되였지만 로동계급출신답게 몸이 열쪼각, 백쪼각 난다 해도 장군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해갈 신념의 맹세가 더더욱 불타올랐다.

조세웅동지는 70일전투의 나날 일군들에게 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대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가봐 걱정이라고 하면서 한걸음을 걸어도, 사색을 하나 해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숨결에 자신을 따라세웠으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되게 문제를 세우군 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열흘 남짓한 기간이 흘렀을 때였다. 어느 한 군의 책임일군이 농촌진설용으로 나가는 자재를 가지고 군당청사를 건설하고있다는 자료가 70일전투중앙지휘부에 제기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조세웅동지는 격한 마음을 새길수가 없었다. 때문에 그날 밤으로 그 책임일군이 일하고있는 군으로 내려가 현장부터 찾았다. 실태는 참으로 엄중하여 절대로 묵과할수가 없었다. 아무리 능력있고 지난날 공로가 많은 일군이라고 해도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에는 사소한 요소라도 당적원칙의 칼날로 무자비하게 쳐버리는 기질의 소유자가 조세웅동지였다.

깊은 밤에 현장으로 불려나온 군책임일군은 그의 성미를 잘 알아서인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어둠속에서도 격분으로 이글거리는 조세웅동지의 눈빛이 가슴에 서려들었다. 칼날같은 호된 꾸짖음이 밤하늘에 쩡쩡 메아리쳤다.

《동무가 도대체 당원이 옳은가? 우리가 하는 70일전투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받들기 위한 사상전이라는것을 동무가 모른단 말인가? 어제날에는 당의 뜻을 거역한 종파분자들이 역적이였다면 오늘날에는 당과 외교를 하는 동무같은 사람들이 반동이요, 반동.》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받드는 충신의 마음속진심에서 우러나온 철석같은 신조의 토로였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70일전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린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한밤중에 수력리길을 달려갔다온 조세웅동지의 불같은 충정과 혁명적원칙성에 머리가 숙이짐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조세웅동지를 두고 진짜배기혁명가,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며 들려주시였던 이야기가 되새겨졌다.

그것은 1960년대 중엽의 어느날엔가 있은 일이였다. 조세웅동지가 당사업을 하고있던 기계공장에 지도사업을 내려왔다는 중앙의 한사람이 여기서는 왜 《항토꾸리기 10개년계획》을 받아물지 않는가고 하면서 당장 집행하라고 내리먹이였을 때 그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7개년계획밖에 모른다.》고 하며 단호하게 맞서 당정책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동무라는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견결한 당적원칙성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한 조세웅동지와 같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충신의 한자세로 산 진짜배기혁명가들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였다.

### 뭇별들이 빛을 뿌리는것은

저 하늘에 태양이라는 영원한 광원이 있어 뭇별들이 빛을 뿌리는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고 당의 신임이 있기에 전사의 존재가치가 있고 그 삶이 빛난다는것은 조세웅동지가 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였다.

사람들은 조세웅동지가 예리한 분석판단력과 혁명적전개력, 높은 조직적수완을 갖춘 능력있는 당일군이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의도와 구상을 경제건설실천에 훌륭하게 구현할줄 안 믿음직한 경제일군이였으며 당에서 과업을 하나 받으면 다섯, 여섯가지로 전개하여 집행한 창발적이고 책임성높은 실천가였고 나라살림살이를 틀감장사하듯 이악하고 민틀없이 한 실무가였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조세웅동지의 이러한 사업기풍과 일본새, 능력과 자질은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경제지도방법을 배우고 지휘능력을 키운 70일전투의 나날과 메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기껏해서 공장 당비서사업을 해본 경력밖에 없는 조세웅동지에게 있어서 처음 현지에서 70일전투를 총지휘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자면 실력부터 갖추어야 한다는것을 그때처럼 뼈저리게 체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는 남보르는 대학생이 되였다. 워낙 한다면 하는 불같은 성미였던 조세웅동지는 그 어떤 체면에 앞서 70일전투를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은 경제실력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웠다. 그 열정은 어느 한 대학의 로교수도 머리숙이게 하였고 후날에는 그의 박식한 경제지식에 한다하는 경제부문 일군들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물론 70일동안에 뛰어난 경제실무가로 된다는것은 힘든 일이였다. 조세웅동지도 그것을 묵계한것은 아니였다. 70일전투를 현지에서 책임진 중앙지휘부 일군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 언제나 정확한 사업보고를 드리고 장군님께서 바라고 의도하시는대로 경제작전을 짜고들려는것이 그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기에 짬만 있으면 수도의 어느 한 대학을 찾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언제인가 조세웅동지가 지방출장길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하늘엔 뭇별이 총총한 때였다.

당조직에 출장보고를 하고난 그는 그길로 이미 친숙해진 한 교수의 집을 찾았다. 이런 일을 벌써 여러번 겪은 교수는 아무 내색없이 그가 알고싶어하는 경제학적문제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강의해주었다. 조세웅동지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퍽 지났다. 그는 어느때처럼 평동기에서 얼음주머니를 꺼내여 소평이에 넣고 거기에 발을 잠근 다음 한손에는 차디찬 얼음덩어리를 쥐고 그날 계획했던 사업과 미진된 학습에 달라붙었다. 그가 이렇게 피타게 쌓아가는 지식은 70일전투로 들끓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현실속에서 실력의 키를 부쩍 높여주었다.

자기의 온넋과 옥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서라도 70일전투를 진두에서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1분1초를 대신할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더 바랄것이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재부가 위대한 장군님의 1분1초라고 생각한 조세웅동지는 그것을 위하여 분분초초를 쪼개가며 일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절반 가까운 나날이 흘렀을 때였다. 어느 한 탄광에서 석탄생산은 많이 했는데 화차가 없어 제때에 실어내지 못한다는 자료가 제기되였다. 조세웅동지는 즉시 탄광에 내려갔다.

그때 조세웅동지는 지나친 과로와 오래동안 앓고있던 속병때문에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형편이였다. 하지만 본인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 곁의 일군들조차 그가 얼마나 완강한 의지력으로 자기 몸을 지탱하고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조세웅동지가 내려오자 탄광 지배인은 중앙지휘부에서 전반적경제사업을 맡아보는 일군이 내려왔으니 화차문제는 다 풀렸다고 은근히 기뻐하였다. 조세웅동지는 지배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 전용선과 구내철길, 화차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리고나서 곡선으로 놓인 철길은 곧바로 펴고 로반정리를 잘하면 화차순환이 빨라지고 과손도 적게 될것이 아닌가고, 왜 못쓰게 된 화차들을 자체로 수리해서 쓸 생각을 못하는가고 하였다. 지배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타산해보았다. 정말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화차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였다.

놀라와하는 지배인에게 조세웅동지는 무거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석탄생산과 수송문제때문에 마음쓰시였소. 우리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기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무나 나를 비롯한 일군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시게 된단 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단 1분1초라도 허비하시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머리를 쓰고 옥신을 바칩시다.》

지배인은 커다란 자책에 잠기면서도 이런 깨끗한 충정심을 지닌 실력가형의 일군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곁에 있는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적시였다.

조세웅동지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질과 높은 실력을 지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은 사실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조세웅동지는 70일전투의 나날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으로 중심과녁을 명확히 정해주시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과단성있는 지휘, 빛나는 예지와 락월한 령도수완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보좌해드리면서 한두번만 매혹의 격정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 나날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수송문제때문에 고심하던 조세웅동지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주시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조세웅동지의 건강이 어떠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나서 항들에 활새기증기를 놔주어야 하겠는데 몇대나 만들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동안 속구구를 해본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잘하면 10대정도 만들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달사이에 50대정도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나는 동무가 로동계급출신이기때문에 배짱이 있는가 했더니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가는 심장이 커야 한다, 그래야 당과 혁명앞에 어려운 일이 제기되여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난관을 맞받아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적극 뒤받침해주겠으니 대담하게 전개해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로동계급의 본태를 잊을번 한 조세웅동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다. 치밀한 조직정치사업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 그는 어느 교전이나 대학에서도 배울수 없었던 경제지도방법과 당사업원리를 또 한차례 깊이 터득하게 되였다.

조세웅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심장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드세 손락으로 밀고나갔다. 나날이 놀라보게 성장하는 전사의 모습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아래 거창한 변혁의 새 력사를 체험하던 70일전투의 나날에 조세웅동지는 이렇게 온 나라의 경제를 굽이보는 안목을 틔우고 당일군으로서의 자질과 실무도 풍만히 갖추어나가게 되였다.

섹 후날 당중앙위원회에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맡아보는 조세웅동지의 높은 식견과 사업능력에 탄복한 외국의 한 인사가 당신은 어떻게 되여 무슨 일에서나 그렇게 막히는것이 없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조세웅동지는 경건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의 유명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인 70일전투때부터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 배워주셨습니다.》

### 그 품속에 영원히 살리라

인간의 아름다움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 있다. 이 소중한 진심을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의 길에서 꽃피울줄 아는 사람이 혁명가이며 그 귀중한 본보기가 백두의 초행길을 걸은 항일혁명투사들과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자집아이들이 놀려주는 꼬맹이산당지키라는 수모에서 벗어나보려고 산골에서 뛰쳐나와 여러 공사판에서 잔뼈를 굵힌 조세웅동지는 늘 자기 속생각을 있는 그대로 툭 터놓았으며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가식과 변심을 모른 참된 인간이였다.

주체63(1974)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조세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당시)에 참가하여 70일전투진행정형에 대한 실태보고를 하게 되였다.

그때 조세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 70일전투가 대사상전의 불길속에서 첫시작부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씀드리였다.

회의가 끝났을 때였다. 조세웅동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대뜸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자신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른데 대해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일군들에게도 전화를 하여 자신에 대한 존칭사를 쓰지 못하게 하라고 거듭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조세웅동지였지만 이 지시만은 도저히 집행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세웅동지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우리는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고, 자신께서도 수령님의 전사이라고 다시금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조세웅동지의 가슴속에서는 그처럼 절출한 친품을 한몸에 지니시고도 자신을 항상 전사로 낮추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민적풍모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격정이 더더욱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세웅동지는 그 거룩한 모범을 거울로 삼고 늘 자신을 내세울줄 몰랐으며 스스로 인간적수양, 혁명가적풍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참다운 당일군이였다.

70일전투가 거의 끝나갈무렵 조세웅동지가 서해지구의 한 광산에 내려가있던 어느날은 전당적으로 학습을 하는 날이였다. 그는 학습시간이 되자 가까이에 있는 한 직장의 학습반을 찾아갔다.

수수한 현장학습회장에 앉아있는 조세웅동지를 본 학습강사는 한동안 강의할념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70일전투전반을 지휘하느라 항상 시간을 쪼개서 일하며 몸달리 청높은 목소리로 일군들을 무섭게 다룰데대한 일군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자기의 미숙한 강의를 받으려 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심정을 되여본 조세웅동지는 강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출장은 당원이요. 학습에서는 례외가 없소. 어서 강의를 시작하오.》

그 시기 70일전투보장을 위해 곳곳으로 뛰여다니던 많은 출장자들을 각성시킨 이 이야기는 조세웅동지의 자각적인 당생활기풍뿐아니라 현장에 내려가면 늘 로동자들과 어울리는것이 습성화되였던 그의 성실하고 소박한 품성도 엿보게 한다. 70일전투의 나날 조세웅동지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당정책관철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과 로동계급적인 성격과 배짱, 혁명의 령도계급다운 투쟁기풍과 일본새와 함께 일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간적풍모와 자질을 배우게 되였다고 지금도 추억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조세웅동지가 70일전투의 나날에 이룩한 모든 성과는 령도자를 받드는 전사의 충실성에서 출발된것으로 하여 그처럼 값높고 귀중한것이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조세웅동지가 자정이 되여오도록 어느 한 현장 지휘부에서 일하고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안해가 남편이 좋아하는 조찰밥을 해가지고 찾아왔다.

조세웅동지는 책상 한옆에 차려놓은 조찰밥을 보더니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는것이였다.

이윽토록 창밖을 내다보며 서있던 조세웅동지는 나직이 혼자말을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식사나 제때에 하시는지…》

그의 목소리는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있었다. 그즈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던것이다. 70일전투장으로 떠난 날부터 더더욱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를수록 조세웅동지는 장군님께로 달리는 마음을 금치 못해 뜬는으로 밤을 지새운적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럴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기대와 의도에 맞게 70일전투지휘를 더 잘하기 위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불편한 몸으로 아프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조세웅동지의 건강을 늘 걱정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군 하시였다.

력사적인 70일전투가 진행된 주체63(1974)년도 다 저물어가던 때였다.

조세웅동지를 몹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다가 동무의 병이 도진 정도가 아니라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못내 걱정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포장하신 크지 않은 지함을 안겨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내가 동무의 건강에 좋다고 하는 보약을 좀 구해놓았는데 이것을 가져다 써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약지함에 〈1주일간 휴식하면서 복용할것〉이라고 쓴대로 이제부터 한주일간 무조건 휴식하면서 이 보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디마디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려깊으신 은정에 조세웅동지는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당력사에 온 세상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 한 일군의 건강을 위해 친히 보약을 마련하고 손수 처방까지 써준 그런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새겨진적 있었던가.

자기 령도자의 은덕을 알고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충정과 진심을 다 바칠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펫펫이 이바지한 참된 혁명가로 력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법이다.

당의 권위와 령도업적을 옹호하고 빛내이는 길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칼날우에라도 올라서서 맹수와 같이 투쟁하는 비타협적인 혁명적원칙성, 당의 사상과 로선과 정책을 오직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투철한 무조건성, 당에서 맡겨준 임무에 대해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최고의 수준에서 관철하는 완강성, 이것이 조세웅동지를 그 누구보다도 열렬한 충정과 뛰여난 실력을 지닌 진짜배기혁명가로 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진행된 첫 70일전투를 생각할 때마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이였던 조세웅동지를 추억하는것은 바로 그가 자나깨나 자기 령도자의 믿음에 보답할 열망으로 피를 끓이며 자신을 깡그리 바친 우리 당의 참된 일군이기때문이다.

조세웅동지를 비롯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중앙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하나의 신념으로 충정의 70일전투의 자욱자욱을 빛내일 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우리 당을 더 높은 광물증산성과로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 태양절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 이야기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 4월 15일, 해마다 전체 인민이 기다려온 태양절이 우리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 4월 15일, 해마다 전체 인민이 기다려온 태양절이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는 평범한 로동일이였고 조국과 인민의 부강번영을 위한 헌신의 날들이였다.

### 검소하게 보내신 탄생일

주체40(1951)년의 탄생일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일군들은 소박한 밥상이나마 차려드리려고 하였다.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이 전선과 후방에서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때에 생일이 무엇인가고, 절대로 생일상을 차려서는 안된다고 이르시였다.

계속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우나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가 아닌가고, 정 차리려면 그저 평상시와 같이 밥 한그릇을 차리면 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탄생 39돐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많은 편지와 축하전문을 보내온 그해의 4월 15일을 그이께서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소박하게 차린 밥상을 마주하시고 검소하게 보내시였다.

### 몸소 헤치신 진펄길

전후 처음으로 맞으신 탄생일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중화군의 어느 한 농업협동조합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이슬이 맺혀있는 보리밭머리에 앉으시여 조합형편이며 농사일을 료해하시였다. 기계로 밀을 심는다는 이웃마을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차도 못 가는 험한 길을 걸으시여 그곳을 찾으시였다. 좋은 샘터가 있다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샘터를 찾으시여 마지를 걸어올리시고 멘발로 진펄에 들어서시였다. 조합일군들이 거기는 수령관이니 들어서지 마시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전에 일제와 싸울 때에는 이보다 더한데도 다녔다고 하시며 험한 습지를 일일이 밟아보시였다. 그리고 앙어장자리도 몸소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어 어머 단위들을 더 돌아보시였다.

그날 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생일을 쇠였다고 하시면서 다음해에도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탄생 40돐을 맞으셨건만 포연속에서 어느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보내시였다.

전쟁이 끝나면 해에도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을 끝끝내 마다하시면서도 평범한 한 전사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웅심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 온 나라 일을 돌보시며

주체77(1988)년 4월 15일이였다.

세계 여러 나라와 해외동포에 슬단의 공연을 보시고 집무실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설비들을 보수할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내화물을 잘 대주어 소성로의 만가동을 보장할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신 후 이번에는 또다시 철생산과 전력생산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철도화물수송실적을 료해하시였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할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며 어느덧 자정을 넘기시였다.

4월 봄명절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한 일군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수령님, 오늘은 생신날입니다. 오늘밤은 좀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를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맙소, 더 늙기 전에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하자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뜨겁게 터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밤늦도록 온 나라의 일들을 돌보시며 탄생일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충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자

## 목표는 대담하고 현실성있게, 실천은 공격적으로

### 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수도전역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로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주요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 거리와 마을 그리고 봄빛짙어가는 농장벌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시대정신, 만리마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거창한 창조와 혁신의 열풍속에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전투장들에서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구슬땀으로 70일전투기록장에 눈부신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여 40여일이 지나간 현시점에서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기풍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작전이 대담하고 통이 크며 실천 또한 공격적이라는것이다.

시당위원회가 내세운 70일전투목표는 실로 방대하다.

이 엄청난 목표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공장, 기업소들의 인민경제계획수행도 그렇고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수많은 대상건설들을 70일동안에 과연 끝낼수 있겠는가. …

하지만 시당책임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고 이미 모든 잠재력을 타산하고 빈틈없이 세운 목표였고 가능성도 여러차례 구체적으로 따져본것이였다.

면밀한 타산밑에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는 주저할것이 없었다. 돌격명령이 내려졌다.

전화의 그날 불붙는 화염으로 육탄이 되여 달려나간 화선용사들처럼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70일전투목표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첨입식정치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우렁찬 포성이 울려퍼졌다. 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 시와 구역의 집중강연선전대, 녀맹예술선동대, 공장, 기업소들의 기동예술선동대, 학생휘주악대, 학생가창대활동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고 방송선전차들에서 울려나오는 방송원들의 힘있는 목소리와 혁명가요, 전투적인 노래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들었다놓았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가 산 정치사업을 들이대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다.

시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기간 10개 단위를 전형으로 내세우고 절린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도록 밀어주면서 다른 모든 단위들이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본받아 말은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댔다.

이 과정에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3월 10일까지 70일전투결의목표를 50일이나 앞당겨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6개 단위들에서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50개 단위들에서 1.4분기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부문에서는 계획을 157%, 농업부문에서는 160%, 건설부문에서는 187%로 장성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시작으로 22명의 년간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과 315명의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이 배출되였고 이들의 모범을 따라 집단적혁신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속에 김형직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자진하여 섬초소학교들의 교원으로 탄원하였고 1만 수천명의 년로보장자들과 수만명의 녀맹원들이 70일전투의 거창한 흐름에 뛰여들어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여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할 불타는 마음안고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장에 떨쳐나온 청년돌격대원들은 맡겨진 4 500여㎥의 박토처리를 일정계획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자진하여 평양무궤도전차공장개건공사장을 비롯한 수도의 주요전투장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참가하고있다.

거창한 규모에서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대상건설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시안의 수십개 대상건설전투장들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다.

시시각각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건설장들은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심을 검증받는 격전장들이다.

하루계획을 300%로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밤낮 치렬한 전투를 벌리는 이들에게 구태여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고 묻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결사전을 벌리며 당 제7차대회에 드릴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연방 전해지는 70일전투의 자랑찬 새 소식들이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전투장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이미 70일전투의 목표로 선정된 수도의 주요도로들의 수립화가 끝났고 금모가 큰 애국남새가공공장과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가 완공되였으며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수도시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방대하고 거창한 사업이 중단없이 벌어져 현재 시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공급과 승강기정상운영, 수도려객운수부문사업이 확고히 개선되였으며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날마다 성과가 확대되여가고있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이 그대로 산하단위 일군들의 일본새로 이어져 우리 당의 인민관을 체질화, 인생관화한 일군들의 대오가 나날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봄철을 맞으며 시안의 아빠트들과 공공건물들의 보수가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또한 거리들과 유원지, 공원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이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그 면모를 나날이 일신해가고있다.

농업부문에서도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현재 시안의 농장들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비료생산계획을 끝냈고 봄밀보리씨뿌리기와 벼모판만들기, 올감자심기와 봄남새씨뿌리기, 논갈이와 마른논두렁짓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영농공정들이 지난 시기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목표는 높고 할 일은 방대하지만 돌격전에 나선 시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용진군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다.

승리는 확정적이고 경축의 축포가 오를 영광의 5월은 눈앞에 있다.

### 체육촌건설장에서

## 여기는 격전장이다

어기는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서는 시체육촌건설장이다.

어제날 섬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들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건설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체육관건설장은 외부와 내부미장이 끝나고 지붕공사와 외부마감공사준비로 들끓고있었다.

이 공사를 정천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통채로 맡아 해제끼고있었다.

체육관내부에서는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이 한덩이리가 되여 바닥공사를 다그치고있었다. 모두가 격전장에 나선 용사들이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밖에서는 지대정리가 한창이였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에 화답하며 구역의 녀맹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지원자들이 백열전을 벌리고있었다.

어찌 체육관건설장만이랴.

중구역에서 맡은 체육인숙소건설장도 불만 하였다.

치렬한 경쟁이 벌어지는 전투장마다에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었다.

구역당책임비서도 인민위원장도 돌격대원이다.

지열난방체계와 태양빛전지에 의한 조명체계로 설계된 체육인숙소는 외부와 내부공사가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체육인숙소의 만장에 울려내리다보니 야외축구장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었다.

야외축구장 우수망콩크리트치기를 단 열흘동안에 해제낀 기세로 지반다짐에서도 전례없는 속도로 내달려 총공사량의 50%계선을 넘어서고있었다.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련속 운동장에 흔석을 쏟기 바르게 기계화수단들이 지반다짐을 하고있었다.

시청년동맹위원회와 시녀맹위원회, 시직맹위원회에서 20일만에 근 1만㎡의 흔석을 보장하였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건설의 속도를 충분히 가늠할수 있었다.

수시로 뿜어져나오는 지하수와의 결사전을 벌리며 보통강구역이 맡아 진행하는 오수펌프장건설장에서도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한마디로 모든 공사가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있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건설장은 온통 불야경을 이루었다. 그야말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격전장이였다.

## ‖ 만리마를 타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해간다 ‖

### 평양중등학원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중등학원건설이 시작된지 불과 몇달도 안되여 총공사량의 85%계선을 넘어섰다.

방대한 면적에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을 그윽히 갖춘 멋쟁이건물로 일떠서는 중등학원은 벌써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결사의 의지를 안고 중등학원건설장에 달려나온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분과 초를 다투며 결사전을 벌리고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공사속도가 나날이 높아지는데 맞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있다. 공사를 책임진 일군들은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으로 공사를 결속할 목표밑에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현재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을 비롯한 11개 대상의 내부공사가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섰고 외부공사에 총력량이 집중되여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평양중등학원건설장에서—

### 대동강유보도 2단계공사장에서

대동강유보도 2단계공사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사람의 힘이 정말 무섭고 놀랍다.》

이것이 옥류교를 건느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하는 말이다. 하루만 지나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이 경이적인 속도창조자들이 대동강구역과 중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다.

남자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판석과 콘돌을 능숙 들어 규모있게 척척 쌓아가는 가두녀성들과 맞들이와 질통으로 혼합물을 나르며 걷는것도 씨원치 않아 달리고달리는 녀성들, 그들이 공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탓하는 사람들은 없다.

—대동강유보도 2단계공사장에서—

### 미림색기와공장건설장에서

수도의 민음직한 건재기지의 하나인 미림색기와공장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근 3만㎡의 면적에 모든 조건이 그윽히 갖추어진 색기와공장은 착공한지 얼마 안되지만 벌써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토기와생산장과 세멘트기와생산장, 원토적재장, 보이라실, 가스발생장, 사무실청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이 결속단계에 이르렀고 설비조립에 들어갔다.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골조단계에 머물러있던 공장건설이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여가고있다.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시당위원회일군들과 사동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련일 낮에 밤을 이어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현재 수십종의 설비들에 대한 조립이 90%계선에 도달하였다.

대동강구역과 중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도 결사의 의지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총공격 앞으로

###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고있는 속에 70일전투목표와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70일전투가 시작되자 3월말까지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걸었다.

할수 있는가?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화답해나섰다.

3월말까지는 너무 늦다. 3월초까지 계획을 넘쳐 수행하자!

온 공장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일군들과 전체 종업원들이 생산현장에서 침식하며 코대없는 전투에 들어갔다. 일생산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계획한 날자까지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거두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는 3월 19일까지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3월 25일까지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공장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늘 공장종업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활상고충을 일일이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며 마음속아픔까지 달램히 씻어주면서 70일전투의 혁신자로 이끌어주는 초급당비서를 두고 모든 종업원들이 《우리 당비서》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다.

이런 당일군들의 진심에 의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통지적으로 굳게 뭉쳐 대중적혁신운동의 불길높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류원신발공장 일군들의 첨입식정치사업과 후방사업이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공장기동예술선동대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고 일군들의 뜨거운 인정미가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공장초급당비서의 다심한 마음에 의하여 뒤떨어졌던 종업원들이 혁신자의 대렬에 들어섰고 자재보장을 위해 아글타글 애쓴 지배인의 헌신적인 노력은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게 하였다.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결사의 의지로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하고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서는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대중적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로동자 최은심동무는 1.4분기안으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자체로 부족되는 수많은 자재와 부속품을 해결하며 혁신의 봉화를 추켜들었다. 그는 결사적인 전투를 벌려 지난 3월 14일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로동자 피영희동무를 비롯하여 6명의 종업원들이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냈고 3월 20일까지 5명의 년간인민경제계획 수행자들이 배출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모든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현장에서 벌리는 화선식정치사업,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진심어린 후방사업, 능숙하면서도 현실성있는 전투지휘와 이신작칙이 70일전투에서 기적을 낳게 하였다.

공장현대화를 예정기일보다 10일이나 앞당겨 추진하면서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3월까지 빛나게 넘쳐 수행한것은 공장초급당비서와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의 헌신적인 일본새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 *

어찌 이 공장들만이겠는가.

3월까지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하당은하피복공장과 애국편직물공장의 뒤를 이어 시안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그 대오에 들어서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식료련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삼신탄광 등 시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도 매일 70일전투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최근 수도려객운수부문에서 자랑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거리들에서 려객차들의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새 차처럼 수리된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 뻐스들의 실동대수가 늘어나 시민들의 교통상편의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전으로 수도려객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력량을 푸어 현지에 파견하였다.

수도려객운수국의 려객차사업소들에 파견된 일군들은 매일 로선들에 나가 해당 일군들과 함께 려객차들에 대한 운행지휘도 하고 직접 려객차들을 타고 운전사, 차장들과 함께 전구간을 오가며 정상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고장난 려객차들을 수리하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 합심하여 낡은 뻐스들을 70일전투기간에 100% 새 차처럼 만들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모두가 수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안고 전투에 진입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련관단위와 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하루일을 마치면 그길로 성의있는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현장에 달려와 수리공들과 함께 전투를 벌리고있다. 뻐스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평양고기생산가공련합기업소, 평양시송배전부, 평양자동화기구공장, 평양식료련합기업소, 평양가금생산공장을 비롯하여 시안의 30여개 단위들에서 뻐스수리에 떨쳐나선 수도려객운수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힘껏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된지 보름만에 새 차처럼 수리된 수십대의 뻐스가 자기 로선에 들어섰다.

수도려객운수국 무궤도전차, 궤도전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기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며 긴장한 수리전투를 벌려 20일동안에 40대의 궤도전차와 38대의 무궤도전차를 원상복구하고 전력계통들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보통강구역과 중구역, 락랑구역, 형제산구역, 룡성구역의 일군들도 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는것은 자기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수도려객운수국의 여러 단위들을 성의껏 지원하였다.

## 멸사복무의 투쟁기풍으로 떨쳐나

### 수도려객운수부문에서

## 현대화의 목표를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개건보수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새로 건설되는 13개 대상의 골조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고 3개의 개건보수대상공사는 내외부완성미장에 들어갔다.

공사장은 건설에 참가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과 가두녀성들로 들끓고있다. 누가 돌격대원이고 누가 지원자인지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힘찬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이런 드높은 열의에 떠받들려 공사실적은 현재 60%계선을 넘어섰다.

### 청년두단종어사업소에서

청년두단종어사업소의 개건공사장에서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현재 사무실청사를 비롯한 8개의 대상건설이 완공되였고 주변꾸리기가 마감단계에 들어갔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사업소일군들, 종업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평화사료가공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평화사료를 만들어 알곡소비와 물물림성을 낮추고 사료를 절약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 평천정화장판리소에서

평천정화장판리소개건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여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공사에 동원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결사의 의지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치렬한 전투를 벌려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미 건축공사가 진행된 대상들의 외장재바르기와 보수가 끝났고 2침전—1증력수관놓기와 오니농축기설비설치, 반응로우수판조립이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많은 설비와 2 000m의 각종 관들에 대한 점검과 도색이 원만히 진행되였다.

### 룡북식료공장과 모란식료공장에서

룡북식료공장에서는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면서 공장개건을 적극 내밀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이미 모든 건물을 일신하게 맞게 구내를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고 국가과학원연구사들과의 협동밑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어 두부생산설비들을 국산화하였다.

모란식료공장에서는 생산건물과 기본청사를 개건하고 구내를 새로 꾸리는 사업과 함께 현대화에 힘을 넣어 튀기과자와 식초생산설비를 비롯한 모든 제품생산공정들을 일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두단오리공장개건공사장에서

공장에서는 생산을 적극 내밀면서 7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공장개건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보이라제작과 배관설치를 끝내였다.

또한 가스발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오리촌제장에 위생통과실을 건설하고 수의방역대의 위생통과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 문화회관지붕공사, 먹이창고와 두단원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 룡악산샘물공장개건공사장에서

공장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샘물생산장과 용기생산장의 내부구조개건공사, 후생건물건설, 수십종에 달하는 수많은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현재 많은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제작중에 있는 설비들도 짧은 기간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마감단계에 이른 모든 공사를 4월말까지 끝내기 위한 전투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 평양시남새연구소개건공사장에서

연구소에서는 연혁소개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력식온실 4동과 기본청사내외부꾸리기사업, 구내도로보수와 새 울타리건설, 도로포장을 다그치는 한편 채종작물옮겨심기를 일정대로 내밀고있다.

또한 로전에 관수를 위한 수백m의 관을 늘이고 각종 남새모옮겨심기를 다그쳐 일자리를 내고있다.

* *

이밖에도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아래 감자조직배양공장과 농기계부속품공장을 비롯하여 수십개 대상의 개건공사도 다그쳐지고있다.

###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내달리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선구자들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대안!

우리 또다시 여기에 섰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은 지난해 방대한 량에 달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비생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땅이다.

바로 이곳에서 올해에 들어와 온 나라 천만군민을 격동시키는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이 또다시 창조되였다. 영웅적인 대안로동계급은 두달 남짓한 기간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용량이 큰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생산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 혁혁한 성과는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뚜렷한 전진속도와 함께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또 하나의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그처럼 짧은 기간 대안로동계급이 발전설비생산에서 거둔 성과도 물론 귀중하다. 하지만 그 생산수자에 비할바없이 크고 고귀한것은 이들이 승리와 영광의 5월에로 향한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서 우리 당의 굳함없는 공격정신과 오직 승리만을 떨치는 계속혁신의 투쟁기풍을 더욱 체질화한 바로 그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피줄을 잇고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며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정신력은 무한대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다시한번 현실로 증명한 대안로동계급!

이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는가.

### 한순간도 신들메를 늦출수 없다

올해 1월초, 실로 중대한 과제앞에 대안로동계급이 서있었다.

60여일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 결속!

지난해 이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발전설비생산투쟁의 분분초초를 어떻게 이어왔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찬 일인가를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그때 대안로동계급이 단 석달동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발전설비들을 생산보장한 사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누구나 기적이라고 하였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에게 석달이 아니라 60여일동안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을 끝낼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석달과 60여일, 이 대비적인 수자는 대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누구에게라 할것없이 실로 날카롭게 제기된 문제였다. 쉼없이 먼길을 왔다고, 큰 산을 많이 넘었다고 순간이라도 탕개를 늦추는것은 대안로동계급의 일본새와 인연이 없었다. 나라가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발전설비생산의 동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은 이들이였다. 6년분 회천발전소 발전설비들을 1년 9개월동안에 생산보장하고도 풀지 않은 신들메였고 5년이상이라는 기존관념을 타파하며 단 1년동안 수십기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동시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발전설비생산과제를 불과 석달동안에 해제끼고도 더 든든히 조여맨 신들메였다.

어느 일터에서나 석달을 60여일로 단축하기 위한 시간과의 대격전이 벌어졌다. 어느 기대결에나 일군들이 있었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위력, 맞받아나가는 전투조직과 지휘의 위력에 의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초월한 무조건성의 정신이 곳곳에서 또다시 무섭게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월초 발전설비종합직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어느 한 보링반앞에 모여들었다. 회전자조립에 필요한 복철가공이 진행되게 될 설비였다. 지난해 60일이상 걸린다던 복철가공을 40일동안에 해제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들이였지만 모두의 눈빛은 저으기 긴장되여있었다. 아직 복철소재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링반을 마주한 그들은 가공전투가 시작이나 된듯 열띤 토론을 하였다.

《종전처럼 3-4시간동안 홈 한개를 가공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 종전의 40일이 아니라 20일내에 복철가공을 끝낼수 있는 방도를 무조건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작업공정도 제일대로 째이고 지난해에 시간에비도 있는것 짜냈는데 또 다른 예비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릴 하고있소? 우리 직장이 주춤하면 대안이 주춤하고 대안이 주춤하면 나라의 기계공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소완공의 날도 늦어질게 아니요. 우린 지금 한개 직장의 생산이 아니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파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안되여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참으로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홈들을 이전과 같이 야금야금 가공하지 말고 먼저 쭉쭉 깎아버려 완성치수에 접근시킨 다음 마감가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려모로 계산해봤는데 가능할것 같습니다.》

눈앞이 번쩍 트이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되면 홈 한개를 가공하는데 들던 공정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단축할수 있었다. 얼핏 보면 단순한것 같지만 종전의 형식과 틀을 완전히 깨버린 이 가공방법은 30-40일이 걸렸던 복철가공주기를 20일로 단축할수 있는 실로 결정적인 돌파구였다. 그것은 소재가 도착하기 전에 마련된 승리의 열쇠였다.

발전설비종합직장에서 복철홈가공주기를 훨씬 단축할수 있는 새 가공방법이 나왔다는 소식에 접한 공구생산과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즉시 현장에서 격식없는 모임을 가지였다. 론점으로 된것은 복철홈가공용공구의 국산화문제였다. 사실 그 공구로 말하면 높은 강도를 요구하고있어 지난 시기 수입재료를 쓰지 않으면 만들수 없는것으로 공인되여있었다. 하지만 련합기업소의 곳곳에서 나래치고있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은 이들의 심장마다에도 거세찬 불을 달아주었다.

《동무들, 수입산 공구를 손에 쥐고 만리마를 탈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번 전투기간 복철홈가공용공구를 대담하게 국산화합시다.》

《옳습니다. 이 기회에 수입병을 밑뿌리채 뽑아먼집시다.》

련합기업소 부기사장 서승관동무의 호소에 공구생산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무쇠주먹들을 추켜들고 호응해나섰다. 자력갱생에 기적창조의 지레대가 있고 조선사람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있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안은 대안로동계급, 그들은 이렇게 하루, 한시간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긴급과제앞에서도 생각하는 품이 달랐다. 지난해 우리의 자재로 호쁘언마반의 CNC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각종 치차들의 정밀도보장에 크게 기여한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또다시 우리의 재료로 복철홈가공용공구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실패도 없지 않았지만 고심어린 탐구와 여러차례의 시험끝에 이들은 성공의 문을 열고야말았다.

굳어진 기존관념, 정직된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대안의 곳곳에서 벌어졌다. 타빈안내날개가공은 보링반에서 선반으로, 선반에서 프레나에로 또다시 프레나에서 선반, 볼반 등에로 8차례나 옮겨가며 진행해야 하는 실로 복잡한 작업이였다. 그 하나하나의 공정마다에서 가공에 드는 시간은 둘째치고 소재들을 설치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비되였다. 이것은 타빈안내날개가공에서 오랜 세월 굳어져온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것이였다. 하지만 대형기계직장에서는 프레나와 선반에서 해야 할 작업을 보링반에서 다같이 진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합리적인 지구를 제작하여 보링반에 설치하였던것이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저런 방법도 있는가고 깜짝 놀랐다. 이런 혁신적인 투쟁기풍으로 그들은 안내날개가공공정을 8개 공정으로부터 3개 공정으로 대폭 줄이였다.

오늘은 이 직장, 래일은 저 직장에서 기발한 착상과 새로운 작업방법들이 련속 쏟아져나와 대안땅에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래쳤다.

대안이 순간이라도 멈춰서면 나라의 기계공업의 전진이 멎어서고 발전소들의 완공이 늦어지며 강성국가건설속도도 그만큼 떠진다는 자각, 아무리 큰 산을 수없이 넘고 쉼없이 먼길을 왔다 해도 우리에게는 쉴 권리가 없으며 조국과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의무만이 있다는것이 바로 대안로동계급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공격정신이다.

### 《우리는 대안종업원입니다.》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은 기적창조의 어머니이다. 하다면 그 정신력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진하게 깔려있는것인가.

여기에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 대안땅의 청년한 타넘공이 쓴 일기의 한 토막이 있다.

《나는 오늘계획을 300%로 넘쳐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실적에 만족할수 없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기일을 단 일분 아니 일초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잠을 잊었다. 청년동맹원들은 낮에는 낮대로 자기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이 직장, 저 직장에로 뛰어다니며 야간돌격대활동을 하고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던 은철동무도 또다시 불편한 몸으로 달려나왔고 가정부인인 금희동무나 정실아주머니도 일터를 뜨지 않고 철야전투를 하고있다. 일흔이 훨씬 넘은 년로한 몸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기대앞에 서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 더우기 머리가 숙어진다. 래일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겠다. 그것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투에서 대안종업원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이것이 어찌 발전설비종합직장 1가공직장의 소문난 혁신자인 김경영동무 한사람만의 심정이였겠는가. 대안로동계급모두가 순간순간 자신들과 이런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시간과의 전쟁, 정신력의 결사전을 벌리였다.

자국속도카공은 이행공정만도 5-6번이나 거쳐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였다. 그 맞물림을 짜고들기 위해 매 공정마다에서 대기상태에 있은 발전설비종합직장 로동자들, 그들에게는 기중기가 소재들을 옮기는 시간마저 길어보였다. 하여 이들은 백여kg짜리 소재들을 손으로 넣금 들어 가공설비들우에 올려놓군 하였다.

지난 2월초에 있은 일이다. 대상설비조립직장 3작업반원들앞에는 실로 어려운 임무가 나섰다. 타빈안내장치조립을 빠른 시일에 끝내야 했던것이다. 작업량으로 보나 종전의 경험으로 보나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할 과제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작업반원들모두가 잠을 잊었다. 작업반장 김광형동무는 며칠간이나 현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며 피땀이 선 눈으로 조립전투를 벌리는 작업반원들을 다문 한두시간씩이라도 휴식시키기 위해 인원을 절반씩 갈라 교대작업을 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저마다 앞교대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바람에 싱갱이가 벌어졌다.

《정 이렇게 말을 안들으면 강제휴식을 시키겠소.》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로 발전설비들을 떠나보내고 다같이 쉬자고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안사람들에게야 그런 날들이 진짜휴식일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조립전투의 분분초초를 이어갔다. 다른 작업반원들도 여유시간만 있으면 이들을 적극 도와나선 속에 한달이 걸려야 한다던 타빈안내장치조립은 단 한주일만에 결속되게 되였다.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은 서로 달라도 당과 조국이 안겨준 대안종업원, 이 공통된 부름을 심장에 새겨안고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그 부름을 변함없이 빛내이기 위해 대안로동계급은 한모습으로 굳게 뭉쳤다.

지난 3월 어느날 련합기업소 공구직장 생산현장에서 많은 로동자들의 축하를 받는 신랑신부가 있었다. 신랑은 대안친선유리공장 로장직장 로장공 김은성동무였고 신부는 련합기업소 공구생산과 기술준비공 옥은별동무였다. 이들은 바로 결혼식날 새벽까지도 일터마다에서 철야전투를 벌리던 대안땅의 미더운 혁신자들이였다. 로동자들모두가 기대를 돌리던 손으로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축복해주었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날에도 정든 일터를 밟으며 동지들의 축하속에 결혼식을 한 옥은별동무.

그날 공구생산과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모형제의 심정으로 결혼상과 함께 많은 기념품들을 마련하였다. 동지들이 차려준 결혼상앞에서 신랑신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노래를 불렀다. 또다시 일터에 달려나가 혁신자들의 대오에 섰다.

밤이면 대안의 일터마다에 유다른 성원들이 나타나군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하는 곳으로 꽁우유며 더운물을 들고 찾아오는 대안구역의 학생들이였다. 오빠, 언니들에게 이끌려 사뿐사뿐 걷는 네살, 다섯살짜이 총각, 처녀애들도 고사리같은 손에 쥐여진 사랑을 내밀며 《한알 잡숫고 일하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기대공들은 코마루가 찡해져 한순간 얼굴을 돌리군 하였다. 무엇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터마다에서 이밤도 지새우는지 철부지어린애들이 어이 다 알랴. 하지만 그 애들도 크면 자기의 자서전에 정자로 써넣으리라. 부모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2016년을 어떻게 빛내였는가를 그리고 부모들처럼 대를 이어 변함없이 당과 조국을 받들어갈 결의도 함께!

대안사람들만이였던가. 남포시의 각 구역, 군의 녀맹원들도 래일과 같이 대안으로 물결쳐왔다.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필수품들을 하나하나 모아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로 떠나보내던 그 마음으로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안고 대안로동계급을 찾아온 남포시 녀맹원들!

우리는 그들도 대안종업원이라고 말하고싶다. 아니 남포시인민들모두가, 대안로동계급의 투쟁에 성심성의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은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대안종업원명단에 이름을 새기고 투쟁하였다고 말하고싶다. 백발을 머리에 인 년로한 몸으로 군복들을 다시금 떨쳐입고 대안의 일터마다에서 전시가요를 부르고 또 불러준 전쟁로병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이 보내는 곳만 묵같은 필체로 적혀있은 주소로를 그 하많은 지원물자의 주인공들, 싸우는 고지에 원호전지를 보내는 심정으로 대안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낸 전지의 주인공들모두가 대안종업원이였다고 말하고싶다.

대안종업원!

진정 그것은 어느 한 일터의 종업원을 상징하는 부름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지키고 우리 당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모습이 대안종업원, 이 말속에도 진하게 비껴있었다.

###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타고 최대급행으로

협의회장은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용량이 큰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들을 한시바삐 만들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대안전기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어깨는 대단히 무거웠다. 때는 1월초였고 이들앞에는 두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지난 시기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들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의 변압기생산은 그와는 대비도 안되는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안고있었다.

새형의 변압기생산에서 핵심부분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랭각판 하나만 놓고보아도 종전변압기들에 쓰이던것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었다. 안타까운것은 당장 그것을 만들어낼수 있는 뚜렷한 방도가 없는것이였다.

사실 이 문제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여러해전부터 모색해오던것이였다. 하지만 현행생산도 바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문제도 많아 뒤전에 밀어놓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도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철야전투를 벌리고있을 백두청춘들의 모습에 자기들을 비추어보며 이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과연 그들이 보통상식으로써 해낼수 있는 일을 하고있는가. 종전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와 대담하게 결별해야 했다.

두가지 방도가 탐구되였다. 하나는 지구장비를 새로 제작하여 프레스에는데만 몇달이 걸릴지, 몇해가 걸릴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지배인 리광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의 립장은 단호하고도 명백했다.

《아닙니다. 소방대식으로 변압기들을 만들어놓고 만세를 부를수는 없습니다. 요령주의자들, 기술신비주의자들은 길을 비키시오. 우리가 당 제7차대회장에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생산실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선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경, 림춘일, 김익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랭각판생산설비제작전투에 과감히 진입하였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용량의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생산이 제기되여도 척척 수행할수 있도록 일터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두뇌전, 낡은 일본새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한 자기 자신들과의 전쟁이였다.

아흔살을 가까이하는 년로한 몸으로 오늘도 일터에 서있는 로력영웅인 리과렬로인과 오랜 공로자인 한광호로인이 그 투쟁의 앞장에 섰다. 그들과 함께 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현장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과학적원리 하나만을 믿고 주저없이 들어선 길, 그 길에서 이들이 넘은 실패의 고비는 그 얼마였던가. 때로는 이 설비의 제작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서 모대긴적도 있었다.

《아바이, 우리 힘으로 이 설비를 꼐 만들어낼수 있을가요?》

《암, 만들지 않구. 온 나라에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1974년 우리 대안전기공장 로동계급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20만kVA대용량변압기를 만들었었지.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기술적담보보다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는 일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관점 하나만을 가지고 달라붙어 기어이 해내고야말았네. 그때의 정신으로 달라붙으면 돼.》

대안의 전세대 로당원과 새 세대 기술자들은 다시한번 손을 굳게 잡았다. 이들은 간고한 격전끝에 드디여 랭각판생산설비제작에서 성공하게 되였고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들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번쩍거리거나 화려한 설비는 아니였다. 그 설비에는 아직 이렇다할 이름조차 없다. 하지만 이 설비가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며 또 그것이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 그 설비를 마주하였던 공장의 당책임일군, 그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설비에 꼭 이름을 달아야 한다면 자력자강이라는 네 글자를 제일먼저 새겨넣고싶습니다. 자력자강의 전인력으로 돌진하는 과학기술의 기관차의 이름이라고 할가. …》

용량이 큰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들은 이렇게 태어났다. 공장로동계급의 환송속에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갔다. 이 변압기의 생산으로 하여 종전의 변압기보다 무효전력을 40%나 절약하면서도 생산에 드는 자재를 10%나 줄일수 있게 되였다.

* * *

대안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70일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얼마전 전형단위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았다.

지금 이 시각도 미더운 대안의 로동계급은 승리와 영광의 5월을 더 큰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발전설비생산과 화력발전소대상설비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제 당과 조국이 또 다른 어렵고 방대한 일감을 맡겨주어도 그들은 또다시 해낼것이다.

우리는 만리마기상 세차게 나래치는 여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서 한계를 모르는 대안의 힘을 본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조국번영의 주추를 쌓고 억척의 기둥을 세워가는 기적의 창조자들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다.

본사기자 김 충 성

#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23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9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 평양의 무도회장들에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쳤다.

경축분위기로 설레이는 무도회장들에 《조선의 행운》노래소리가 울려퍼지며 무도회들이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청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격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의 노래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켜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 어려있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인민의 환희》의 노래선률과 함께 춤물동을 이어가는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차넘치였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기상과 용맹을 떨쳐가는 열혈청춘들의 희열과 랑만으로 충만된 《청춘과 용감성》, 《조국에 청춘을 바쳐가리》, 《달려가자 미래로》,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등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며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의 5월을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선군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

# 포구에 울리는 사랑의 배교동소리

## 해주—진포를 오가는 려객선 《ㅁ—객—31132》호를 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온 강산에 따사로운 봄빛이 짙어가는 4월이다.

얼마전 해주항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해상수송대의 한 일군으로부터 은정어린 려객선 《ㅁ—객—31132》호가 첫 운항을 보장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40여년동안 만가동하면서 려객수송에 큰 기여를 해오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려객들로 붐비는 부두가로 나갔다.

마침 기다리던 려객선 《ㅁ—객—31132》호가 부두에 와닿자 선창에 서있던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기쁨이 한가득 넘쳤다.

부두와 배사이에 놓여진 건늠다리판간을 잡고 줄지어 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려객선에 올랐다. 려객선은 도안의 어러곳에서 온 려객들로 흥성이였다.

이윽고 《붕—》 하는 배고동소리가 울리자 려객선은 흰 물갈기를 일으키며 서서히 부두를 떠났다.

려객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선장 장대준동무가 려객선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55(1966)년 10월, 해주항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령일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생각하시여 려객선이 오가도록 뜨거운 은정을 떠올려주시였다.

해주와 강령은 배길로는 몇분이면 가닿을 정도로 빤히 바라보이는 지척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곳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나들이를 가거나 해주에 볼일이 생기면 이 바다길을 놓고도 100여리길을 에돌아야만 하였다.

누구보다도 이곳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주와 진포사이를 오고갈수 있게 해주항에 려객선을 띄워 근로자들이 서해바다의 풍치를 구경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그 은정속에서 첫 운항의 닻을 올린 이 사랑의 려객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려객들에게 봉사를 진행하였다.

선장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조타실과 기관실, 려객실과 갑판실, 식당과 선원실 등을 돌아보았다.

배의 운항과 선원들과 려객들을 위해 생활조건이 훌륭히 꾸려진 려객선의 안팎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조건과 문화정서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정을 우리는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푸른 파도를 헤가르며 경쾌한 속도로 내달리는 려객선의 갑판우에서 아름다운 산천경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이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충정의 70일전투로 들끓는 서해지구의 공장, 기업소들, 영농준비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들…

보고 듣는 모든것이 그대로 70일전투의 나날에 더더욱 높뛰는 조국의 숨결이였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는 1호려객실에 들어서니 한쪽벽면에 려객선의 40여년력사를 보여주는 표창장들이 주런이 걸려져있었다.

2호려객실과 로천갑판객실은 해주시에 일떠서고있는 어러 대상건설을 성의껏 지원하고 돌아오는 지원자들과 이미 70일전투계획을 앞당겨 끝낸 도안의 어러 혁신자들 그리고 동포리에 있는 친정집에 나들이를 간다는 애기어머니를 비롯하여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고넘쳤다.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해 바다길우에 이렇게 사랑의 려객선이 떠서 기쁨과 행복을 실어나르고있으니 정말 꿈같은 세상입니다.》

해방전 어려운 생계를 부지하느라 바다가에서 잔뼈가 굵어졌다는 강령군 사연리에 사는 최로인의 이 말은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사람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련련히 흐르고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를 깨부로 느끼였다.

은정어린 사랑의 려객선을 타고 강령군의 동강리, 삼봉리, 동포리, 내동리, 송현리, 봉오리, 사연리의 사람들은 물론 도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도, 소년단야영생들과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들도 서해바다를 마음껏 유람하며 즐거운 려행과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으니 왜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는가.

지난 40여년간 당의 은정이 려객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려객선선원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떠받들려 오늘도 사랑의 려객선은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는것이다.

《붕—》

어버이의 사랑, 인민의 기쁨을 노래하듯 경쾌한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어느덧 려객선은 경치아름다운 진포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리 신 향

# 태양의 빛발아래 만발하는 애국인재양성의 대화원

## 총련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60년의 자랑찬 로정을 더듬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총련을 전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주체적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습니다.》

애국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틀어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튼튼한 기둥감들을 자래워온 애국인재, 민족인재양성의 원종장!

### 위대한 교육자, 자애로운 학부형

세상에는 우리 재일동포들처럼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자식들을 부럼없이 대학공부까지 시키는 해외동포들은 없다.

돌이켜보면 세계에는 오랜 력사나 배출한 명인들의 수, 교직원, 학생급모와 부지면적, 도서관의 장서 등에서 제노라하는 대학들이 많다. 하지만 총련조선대학교처럼 이 세상 가장 걸출한 위인들의 비범한 령도밑에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일관된 자기의 교육강령을 가지고 해외교포운동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온 대학은 없다.

몇해전 총련 《조선신보》에 조선대학교창립기념 련재수필 《목련의 추억》이 실리여 동포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대학의 창립과 그 발전과정을 체험한 증견자들의 글을 읽으며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력사의 나날이 사무쳐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예로부터 황금 천냥이 자식교육만 못하고 자식 살리는것이 부모구실중에서도 제일 큰 구실이라고 하였다. 망국노의 구슬픈 운명을 락식하며 이역땅에 끌려와 모진 학대와 멸시속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만이라도 대학공부까지 시키려는것은 더없이 간절한 소원이였다. 바로 그래서 조국이 해방된 후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조이며 일본땅 곳곳에 우리 학교들을 세웠던것이다.

세계유일의 해외교포대학으로서 그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온 총련조선대학교가 오늘 창립 60돐을 맞이한다. 이 기쁜 소식에 접한 조국인민들도 열렬한 동포애가 넘치는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치는 이 시각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태양의 빛발아래 총련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빛나는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동포자녀들의 대학진학의 길은 꽁꽁 막혀있었다. 조선대학교가 세워지기 직전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불과 4%였다는 사실이 당시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방하는 자식들이 진학의 길이 막혀 몹부림치고 앞날이 기대되는 제자들이 단지 조선사람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대학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서리를 맞는것을 보는 부모들과 교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재일동포들의 이 피타는 숙망을 헤아려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삼광학교, 진명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시여 이역땅에서 버림받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난당하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대학을 세워주실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아직 총련이 결성되기도 전인 주체43(1954)년 9월이였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다 해도 애국인재와 민족간부를 양성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대전당을 마련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따라 강화발전시키고 재일동포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였다. 온 동포사회가 격정으로 들끓었다. 어디서나 우리 대학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포들의 애국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당황망조한 일본반동들은 《도꾜의 중심에 평양의 공화국기가 날리는 조선대학교가 일떠서는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아우성치면서 미쳐날뛰였다. 하지만 도도히 굽이치는 애국의 격랑은 그 어떤 반동의 방파제로도 막을수 없었다.

주체45(1956)년 4월 10일 마침내 총련 조선대학교가 창립되였다. 아름드리거목도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듯이 오늘 수만㎡의 드넓은 부지에 보란듯이 일떠서 1만 수천명의 졸업생을 낳은 총련 조선대학교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안에 림시로 꾸린 가설교사에서 불과 10명의 교원과 60여명의 학생으로 고고성을 울리였다. 개학날 강의실들에 차고넘친 환희와 열정은 그 어느 명문대학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재일동포들은 이처럼 거치른 일본땅우에 자기 대학의 첫 터전을 닦았다.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해외교포대학의 탄생,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밝은 앞날을 담보한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대학은 창립되였어도 그 토대는 몹시 빈약하였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벽이 흔들리고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들어 신발이 젖는 교사였다. 하지만 자기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불비한 교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두번째로 보내주신 거액의 교육원조비를 통해로 새 교사건설비로 쓰도록 하시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조선대학교의 새 교사건설을 빨리 추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 은정에 떠받들려 주체48(1959)년 6월 13일 마침내 본관과 사무당, 후생당, 각종 실험실습실들을 그쯘하게 갖춘 새 교사가 일떠섰다.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는 국기게양대밑에서 조국의 하늘을 우러르며 재일동포들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언제인가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학창립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다른 나라에 자기의 대학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총련이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고 억세게 싸워올수 있은것은 조선대학교에서 민족간부들을 끊임없이 양성하고있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느라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군 하시였다.

총련 조선대학교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또 그 얼마나 크고 따사로운것인가.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수많은 강령적인 가르치심들과 뜨거운 은정에는 동포대학생들을 애국의 신념과 의지가 투철한 민족간부로, 총련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새 세대 억군으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이 어려있다.

로팔하는 시기와 내용, 전시품에 있어서 조금도 나무랄데가 없어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총련 조선대학교의 조선력사박물관과 자연박물관도 우리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다. 그 뜨거운 사랑은 조국에 꾸려진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 학생들을 위한 교수강습소와 실습학교들, 통신연구원과 통신박사원제도, 겸임연구사제도에도 어려있다. 정녕 절세의 위인들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은 조선대학교가 해외교포민족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빛날수 있게 한 은혜로운 젖줄기였다.

예로부터 부모의 은덕은 낳아서 기른 은덕이요, 스승의 은덕은 가르쳐 사람 만든 은덕이라고 하였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진정 위대한 교육자, 자애로운 학부형이시였다.

### 이역땅에 무성하는 충정의 해바라기들

이역땅에 몰아치는 가혹한 시련과 도전의 광풍이 총련이 헤쳐나가는 애국의 항로를 곤질기게 막아나서고 있다. 하지만 뿌리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끄떡없듯이 만압의 광풍이 아무리 모질고 세차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의 신념은 굳건하다. 예나 지금이나 애국위업의 앞장에는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이 서있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애국충정이 그들의 신념의 원천이다.

선물책장에 깃든 사연도 그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원격조종기로 자동적으로 문을 여닫을수 있게 한 책장안에 차곡차곡 꽂혀있는 어버이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혁명활동내용을 수록한 록화테프들, 독특한 형식의 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와 음향, 록화설비들…

이 책장은 주체61(1972)년 4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선물을 만드는데 쓸 800년 자란 희귀한 아름드리나무를 구하는데도 많은 품이 들었지만 그보다 난문제로 된것은 텔레비존수상기로 볼수 있는 록화편집물제작이였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에는 별로 큰일이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다. 당시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에서도 천연색 텔레비존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던 때였던것만큼 그들의 착상자체가 사람들을 놀래웠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지성이 깃든 선물을 기어이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올리려는 일념안고 모두가 낮이나 밤이나 선물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들이 마련한 선물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일본에서 벤 선참으로 조국에 보내여졌다.

뜻깊은 그해 봄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함께 이 선물을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재간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달하여줄것을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온 대학이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였다. 오늘도 이 대학 졸업생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그날의 격정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10여년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총련 조선대학교에서는 대합창공연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노래》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무대에 선 1000명의 대학생들은 바다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우러러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절절히 부르며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 믿음직한 총련의 억군이 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의 공연을 록화물로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정가의 말씀을 주시고 조선대학교의 교육교양사업을 위해 거액의 자금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떠올려주시였다. 이 사랑의 소식에 접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대학생들은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반동의 아성에서 매일, 매 시각 원쑤들의 탄압공세를 겪어야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있어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처럼 참기 어려운 시련도 웃으며 헤고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활력소이다. 그 힘이 있었기에 총련 조선대학교는 온갖 외래적인 사상조류가 범람하고 반총련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주체형의 애국인재와 해외민족간부들을 키우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지난 60년간 조선대학교의 지붕아래서 자라난 미더운 민족간부, 애국인재의 대부대가 드놀지 않는 기둥이 되고 주추들이 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앞장에서 믿음직하게 이끌어왔기에 총련은 지난 기간 막아나서는 온갖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세계해외교포조직의 자랑스러운 본보기로서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수놓아올수 있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대학교는 곧 총련의 얼굴이다. 총련을 보려거든 조선대학교를 보라.》, 《해외의 조선청년들도 그처럼 씩씩하게 자라나고있으니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말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에도 창탈게 이바지하고 총련의 애국위업도 믿음직하게 담당수행하며 일본사회의 어느곳에 나서도 제일가는 주체형의 민족간부, 애국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내고있는 바로 여기에 총련 조선대학교가 인류력사와 더불어 존재해온 수많은 대학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성스러운 사명이 있으며 남다른 긍지와 영예가 있다.

뜻깊은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총련 조선대학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받들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조국인민들은 그들의 불같은 결의를 믿어의심치 않는다.

본사기자 허 영 민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일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9일 김정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 숭고한 인민사랑과 음식문화발전

## 제21차 태양절료리축전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대에 새로운 료리들을 만들어 널리 일반화하면 후세에 가서는 그것이 전통적인 민족음식으로 될것입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속에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면옥에서는 제21차 태양절료리축전이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우리와 만난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많은 참가단체들에서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특성을 잘 살린 명료리들과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창안완성한 료리들이 전시된 이번 축전은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려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활짝 꽃피우는데서 배우의의가 큰 계기로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 더 좋은 우리의것을

이번 축전에서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이목을 특별히 끌어당긴것은 료리과학기술성과전시회였다.

해당 단위들에서 새롭게 완성하여 봉사에 받아들인 료리 및 식료가공품, 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창의고안증서들, 료리가공기술보급에 리용되고있는 료리기술도서들과 록화편집물 등 전시된 성과자료들은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속에서 따라앉아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하였다.

특히 지력자강의 열풍속에 료리간장제조방법을 비롯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을 리용한 새로운 기초식품개발성과자료들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자기 단위에서 개발완성한 《련화》된장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을 들을 때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허물없이 청렴한 가정의 장맛도 보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이 그리워진다고 하는 창광종합식당 부원 정영순동무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참으로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준 료리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당의 뜻대로 음식문화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야 더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진리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 더 높이 비약하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되여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여러가지 료리들이 풍위있게 전시된 지정료리전시회를 통하여 우리는 료리분야에서 세계제권을 쥘 해당 단위 일군들과 료리사들의 충천한 기세를 느낄수 있었다.

보통강려관관리국에서는 세계와 담당히 어깨를 겨루겠다는 자신만만한 야심을 지니고 메기, 칠색송어, 룡정어를 비롯한 양어물고기료리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참관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나라의 양어발전을 위한 사업도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하였고 그 해빛같은 사랑에 받들려 더욱 창창한 우리의 료리기술발전의 래일을 기쁘게 안아보게 하였다.

대성지도국에서 출품한 비짜들을 보느라니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들의 료리들도 맛보게 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최장 최첨동무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경험들을 교환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료리가공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봉사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처럼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21차 태양절료리축전은 료리기술분야에서도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더욱 빛내여갈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준 뜻깊은 축전이였다.

김 성 룡

## 4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4월 상, 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벼모판씨뿌리기와 모판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우선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낮은온도견딜성이 높으면서 생육기간이 긴 품종들에 대한 씨뿌리기를 4월 상순까지 끝내며 낮은온도견딜성이 낮은 품종들은 하루평균기온이 10℃정도 되는 시기부터 씨뿌리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모종류별, 모내기일나이별에 따라 씨뿌리는 시기를 바로 정하며 씨뿌림량을 규정량보다 늘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벼모판에 밑비료로 린비료를 반드시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정당 240g정도 주며 만일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정당 린안비료 60~70g, 류산아연 3g, 질소비료 150g을 모판흙에 섞어주거나 흙 5kg과 혼합하여 모판에 뿌려주어야 한다. 벼모판종합영양제와 린안비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 가금배설물 1kg을 모판흙에 섞어주거나 흙 5kg에 섞어 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벼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싹이 나오면 인차 낮에 박막을 벗기고 전면바람쏘이기를 하여 모를 단련시켜야 한다.

간석지논에서의 벼모판씨뿌리기와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모판은 씨뿌리기 10~15일전에 만들되 물을 10㎝정도로 깊이 대여 모판토양의 염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음 차단재를 깔고 모판사이의 흙을 피올려 2㎝두께로 펴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판씨뿌림량은 6~7일모로 키울 때 정당 500~600g, 7~8일근모일 때에는 300~400g으로 정하여야 한다.

염피해가 나타날수 있으므로 모판에 밑비료를 주지 말고 덧비료로 주어야 한다.

씨뿌린 후 3일이 될 때까지 모판을 박막으로 완전히 밀폐시켜 모판겉면에 소금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며 그 이후부터는 물을 대고 바람쏘이기와 비료주기, 살초제처기를 하면서 모를 키워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영양단지모판씨뿌리기와 모기르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강냉이영양단지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강냉이영양단지모판씨뿌리기를 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씨앗을 크기별로 골라서 싹틔워 심어야 한다.

강냉이영양단지모판관리는 싹터나올 때까지 밤에 모판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며 싹터나온 후부터 모가 헛자라지 않도록 바람쏘이기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강냉이포전에 밑비료로 줄 흙보산비료를 질적으로 만드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10일(일요일) 오전 만경대상 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게 된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계속 벌어진다.

일요일 오전에는 리명수팀과 선봉팀, 룡악산팀과 4.25팀사이의 남자축구 1급 1차경기가, 오후에는 소백수팀과 룡악산팀, 봉화산팀과 경공업성팀사이의 녀자축구 1급 1차경기가 5월1일경기장에서 있게 된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는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학원, 성천강체육단 선수들의 예술체조경기가,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는 소백수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남자배구 1급경기가 벌어진다.

축구 1급 1차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 남자 기관차:소백수
압록강:평 양
녀자 제 비:압록강

12일 남자 려 명:제 비
표향산:경공업성
녀자 리명수:표향산
갈매기:경공업성

13일 남자 룡남산:선 봉
월미도:4.25
녀자 내고향:룡악산
봉화산:압록강

14일 남자 리명수:소백수
룡악산:평 양
녀자 제 비:평 양

15일 남자 기관차:제 비
압록강:경공업성
녀자 리명수:룡악산
월미도:경공업성

16일 남자 려 명:표향산
룡남산:4.25
녀자 갈매기:압록강

#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말레이시아, 일본예술인들 도착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말레이시아 프레스코 하모니카중주단,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독창가일행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축전선전화가 나붙어있는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예술인들을 축전조직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무참히 수장된 나어린 령혼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자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 공동성토문

현대력사에 가장 경악스럽고 참혹한 비극적재난으로 기록된 《세월》호대참사가 일어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여오고있다.

허나 어둡고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된 어린 자식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던 남녘의 동포형제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가슴속에도 그 피해자들의 통한과 아픔이 생생히 살아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억이 막히고 사무치는 슬픔에 오장이 찢어진다.

우리 북녘의 소년단원들이 벌천지처럼 일떠선 소년단야영소들로 행복의 야영길을 떠날 때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도 제주도로 향하는 배길에 올랐었다.

난생처음 치러진 수학려행이기에 즐겁게 웃고 떠들며 떠났던 그 길이 영원히 돌아올수 없는 죽음과 재난의 길로 될줄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배가 침몰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 지르고 죽어가던 아이들, 차오르는 바다물에 잠기지 않으려 안타까이 얼굴을 내밀며 손끝이 모지라져 피가 나도록 피창을 긁어대던 애처로운 모습들.

남조선사회가 아무리 메마르고 각박하다한들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내민 그 손길을 잡아줄 한줄기 인정마저 없었단 말인가.

해양경찰이니, 그 무슨 《구조대》니 하는 허울좋은 이름은 그렇게 많은데 그 어린 목숨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것을 뻔히 보면서 어찌 그럴듯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대참사야말로 천하의 무법천지, 일반대중은 살아갈래야 살아갈수 없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나 벌어질수 있는 비극의 극치이며 사람의 탈을 쓴 간악무도한 박근혜패거리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죄악중의 대죄악이다.

시시각각 배가 침몰되여가고있을 때 박근혜는 구조대책은커녕 몇시간 동안이나 행치조차 알수 없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더러운 매춘행위에 빠져있었고 수하졸개들은 그들대로 딸짱을 끼고 악귀무목이 지시주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선장이라는자는 제 목숨만 살리겠다고 제일먼저 배에서 탈출하였는가 하면 해양경찰이니 뭐니 하는것들은 《세월》호주위를 빙빙 돌면서 사진이나 찍어대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무고한 수백명이 목지를 코앞에 두고 졸지에 죽어간 세계적인 대참사는 사회악이 부른 필연적재난이고 고의적인 아동대학살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패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거지근성》 등으로 모욕하며 피눈물흐르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수중고혼들에게 두번죽음을 강요하였다.

초상난 온 남녘땅에 비애의 곡성이 차넘치고있을 때 박근혜는 바다건너 양키두목을 끌어들여 잔치판을 벌려놓고 히히닥거렸는가 하면 참혹한 메주점앞에서는 눈섭 하나 까딱않다가 미국대사라는자가 정의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는 허둥지둥 달려가 구진히 《위안》한다 어쩐다 하여 여론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세월》호참사는 남조선사회의 자화상인 동시에 박근혜통치하에서 더욱 비참해질 앞날에 대한 예고였다.

보라,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온 사회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거대한 《세월》호이고 그 선장은 악착스럽고 더럽고 무능한 박근혜가 아니란 말인가.

지금 남은 임기 2년동안 저 혼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미쳐날미의 독기가 곳곳에 멸처 정의와 진리가 질식되고 민생이 파탄나 나날이 재난의 바다에 빠져들고있는 남녘땅에서는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가 숨막혀 죽어가고있다. 고단한 삶의 막바지에서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할딱거리고있다.

미국놈들에게는 막대한 유지비를 섬겨바치고 북침전쟁준비에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뿌려대면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몇푼이 아깝다고 눈알을 부라리고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점심밥이라도 먹이자고 하면 《종북》세력이라고 벅적 고아대고있는것이 박근혜패거리들이다.

남조선의 어린이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온갖 치떨리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못해 자살의 길을 택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흉악한 범죄의 나락속에서 꽃같은 인생들을 망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그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공포정치, 폭압정치로 굴종과 순응만을 강요하고있다.

서슬푸른 그 독재의 칼날앞에서는 살아있어도 죽은 몸이나 다름바 없으니 살인마녀 박근혜의 독기가 차넘치는 인정의 동토대 남조선에서 어떻게 한송이의 꽃인들 제대로 피여날수 있겠는가.

한 지맥으로 잇닿은 북과 남에 꽃피는 자연의 4월은 함께 찾아왔지만 남녘땅엔 천하를 풍풍 얼구는 랭혹한 광풍이 몰아치고있을뿐이다.

돈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고 무한대한 탐욕만이 차넘치는 사회, 인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무참히 짓밟혀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남녘의 청소년학생들은 똑똑히 투시해보아야 하며 참된 미래를 위해 일떠서야 한다.

책상앞에 마주앉아 박근혜가 뒤여주는 《국정교과서》따위나 열심히 외운다고 하여 그 무슨 희망이 있고 앞길이 열리겠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있다가 끝끝내 살아돌아오지 못한 《세월》호희생자들처럼 파도쳐오는 재난과 불행, 절망적인 미래를 앉아 기다릴것이 아니라 희세의 살인악마 박근혜패당을 반대하여 분연히 떨쳐일어나야 하며 자신들의 힘과 용기로 저주로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이 시각 메아리치는 《세월》호령혼들의 절절한 웨침도 바로 살인귀 박근혜를 복수해달라는 피의 절규이다.

나이는 비록 어려도 억울하게 숨진 학우들의 복수를 위하여, 그들처럼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하여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설 때는 왔다.

살인마녀 박근혜에게 죄를 씌어주고 그 대가로 삶의 소중한 모든것을 송두리채 빼앗기고있는 남녘의 수많은 학부모들이여!

자식들의 죽음을 용납할수 없고 넋이라도 살아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다시는 어린 생명들이 헛된 희생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악의 화근, 살인마무리인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징벌하라.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애어린 무고한 생명들을 불행과 재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온 남녘땅을 인간불모지, 참혹한 생지옥으로 만든 대죄악은 반드시 계산될것이며 그 더러운 이름과 몸뚱아리는 죽어서도 우리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9일
평 양

# 조국과 민족,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업적 길이 빛날것이다

## 불패의 군력으로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시여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국력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국제무대에서 제노라 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국제무대에 우뚝 솟아올랐다.

하기에 세계는 우리 공화국을 가리켜 작고도 큰 나라, 그 누구도 넘겨다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싸우는 자주의 성새,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주도하는 정의의 수호자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이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2(1993)년 4월 9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력사적인 사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민족사에 길이 빛날 이 대경사의 날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무궁번영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는 동서랭전이 조미대결로 압축되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파절과 페르샤만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미국은 그 무슨 위기설까지 내돌리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벌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압력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

1993년에 들어와서는 조선반도핵문제를 떠들며 우리의 군사대상물에 대한 일방적인 《특별사찰》까지 요강하면서 국제적여론을 환기시켰다. 여기에 일부 국제기구들과 추종세력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도 합세하여나섰다.

우리가 이에 강경대응해나서자 미국은 힘에 의거하여 우리 공화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다. 방대한 핵무장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다놓고 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불의의 군사적공격으로 우리를 짓이삼키려고 꾀하였다.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인민, 자주적군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

진보적인류는 가슴을 조이며 조선반도를 주시하였다. 조선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온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심각한 불안과 동정, 우려를 표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와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미제와의 대결전의 최전연에 나서시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그 길은 단순히 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시찰의 길이 아니였다. 우리를 힘으로 어쩌보려는 미국과 끝까지 맞서싸워 우리 조국과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길이였다.

사회주의수호와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무적의 군력강화에 있다.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간직된 확고한 신조였다.

백두의 담력과 기상, 뛰어난 지략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며 치렬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오시였다.

1998년 미탕국자가 전례없이 미제침략군부대들의 동원태세와 비행대의 출격준비상태까지 최종점검하면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그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여있다.》는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발을 맞추어 강경보수세력들은 우리의 지위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폭언하였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았다.

지어 미국은 《조선으로 쳐들어갈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고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난 조선전쟁에서 참패당한것을 《복수》한다는 침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내용들을 다른 나라의 출판물들에까지 뻐젓이 공개하였다.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전쟁접경에로 치닫아올랐다. 그러나 미국은 심히 오산하였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에 길을 먹고 물러설 우리가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략에 따라 만약 적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무주고혼의 신세로 만들것이라고 경고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되였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분별없이 날뛰던 미제호전광들은 완전히 위압되고 기가 질려 어찌할바를 모르고 허덥비였다. 덤벼야 솔을 추던 추종세력들은 얼이 나가 입도 벌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결코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것은 아니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은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무모한 핵위협소동에 매달렸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허나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시였다. 험악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질수 있다는 정당한 립장을 표명하도록 하시였다.

2003년 우리 공화국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수단으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 외무성의 립장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해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200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우리는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우리 조국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지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인 핵억제력을 보유한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핵만능론은 물거품이 되였다. 미국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어지없이 패하였다. 미국에서는 《대조선정책은 실패하였다. 궁지에 몰린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라는 개탄의 한숨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죠지타운종합대학의 한 박사는 《조선은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새 세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하였다.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를 어쩌보려던 세력들도 미국이 조선의 기분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숨지한 고백을 터놓았다. 일본군사당국자들속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대국을 가지고 노는 군사전략가》라는 찬사까지 울려나왔다.

세계정치구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를 적대시하던 서방나라들이 전해를 탈리하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에 대해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령도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였다.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외교술을 개념화한다면 선군외교로 정의할수 있다. 대미외교에서 얻은 조선의 특점은 김정일외교의 커다란 승리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령도밑에 우리는 승리하였다. 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대국들도 불안과 위구에 잠겨 침묵과 관망으로 불안한 국제정세를 대할뿐 성명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있던 때에 우리 공화국은 단독으로 《초대국》과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와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였다. 이것은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불멸의 업적이며 기적중의 기적이다.

언제인가 중국의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확고한 결심과 굳센 의지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여 외세의 위협과 압박을 반대하고 조선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세인이 주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벗이든 적수든 다 이러한 업적을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에 직면해있고 장기간 제재를 받아온 조선은 누구도 감히 얕볼수 없는 무력을 건설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체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을 보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떳떳하고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조선을 많은 대국들이 소홀히 할수 없는 동북아시아안정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게 하시였다.》

그렇다. 불패의 군력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쌓으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류의 칭송을 받고계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있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같은 민족사적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우리 공화국의 지위가 비상히 높아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며 인류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학 남

## 위대한 존엄과 승리의 기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크나큰 민족적행운, 대경사였으며 민족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신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온 겨레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악랄한 침략책동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지켜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위대한 존엄과 승리의 기치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

《정의로운 인민들에게는 무적의 힘을, 원쑤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 무적필승의 상징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는 남녘인민들속에서 크나큰 감동과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통일뉴스》, 《뉴시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초인간적인 의지로 인민행야전렬차에 오르시여 지구들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거리를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으로 이어가시였다.》, 《북에서 강조하고있는 김정일애국주의는 북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고 전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굳건히 다져진 이북의 막강한 국력에 약소국들을 마구 주물러대던 미국을 움직 못하게 눌러놓는 필승의 위력이 있으며 거기에 우리 민족성원들 누구나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는 민족적자부심이 있는것이다. 오늘 이북이 강국으로 세인들의 찬탄을 받고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산증거이다.》라는 글이 올라 수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의 운명,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민족운명개척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업적을 남녘겨레들이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그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정을 안고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은 민족의 대경사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계시였기에 이북은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북처럼 자위적국방의 무쇠주먹을 억세게 벼리고 또 벼릴때 내 나라, 내 민족이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존엄높고 영원히 강성번영한다는 바로 이것을 우리 이남인중은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언론들도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을 무릎꿇게 하시였다. 미국은 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북은 핵억제력을 대업을 이룩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 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애국의 절단과 의지로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겨레가 영원히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시다.

오늘 우리 겨레는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승엄히 우러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쳐갈기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경이적인 현실을 목격하며 온 겨레는 이렇게 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부강번영하는 선군조선이여 세세년년 빛나라!》

본사기자 김 향 미

##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강철의 령장

###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3돐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심의 발현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조선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경제적난관들을 극복하였으며 미제와의 핵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숭고한 조국통일사상에 의하여 두차례에 걸치는 북남최고위급상봉이 마련되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주체의 선군태양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 영광을 드린다!

### 루 신 문 특 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3돐에 즈음하여 메루신문 《악씨온 나씨오날리스따》 3월 22일-4월 22일부가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미술작품사진과 함께 편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가장 큰 업적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지난 세기말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을 기화로 조선식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겹쌓인 정신육체적파로로 하여 2011년 12월 17일 렬차에서 손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다.

해마다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는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 영원한 영광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영용적조선인민 만세!

【조선중앙통신】

## 인류가 우러르는 희세의 천출명장

###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체82(1993)년 3월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절정을 이루었다.

일촉즉발의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어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경거망동하는 오만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내린 드센 철추였으며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을 밑뿌리채 흔들어놓는 뢰성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앞에 수심억 인류가 감탄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담력앞에서는 원자탄도 맥을 추지 못한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정말 강하시다. 그이의 담력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명장들의 담을 다 합친것보다 더 뛰어나다.》…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은 마침내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굴복하여 조미회담장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고있던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에게 《미제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갈겼다. 럽어놓고 말하여 오늘날 〈초대국〉인 미제의 면상을 갈긴 장군이 있는가. 면상을 갈기기는 고사하고 주먹조차 내흔들지 못하고있다. 문무를 겸비하신 김정일최고사령관만이 미제를 〈케이오〉시킬수 있었다.》라고 흥분된 심정으로 말하였다.

세계는 이 지구상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싸워 이기는 조선이라는 초강국이 존재하고있음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 군대를 틀어쥐라

주체86(199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한 정치인을 만나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때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 당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 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이 군대를 틀어쥐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수 없다고 하시며 당이 군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군대가 당을 철저히 보위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는 순간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사상이였던것이다.

그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것이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였다.

새 출발을 하자. 위대한 선군정치를 따라배워 우리 당의 진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은 그가 선군정치로 난국을 헤치시며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다진 굳은 맹세였다.

### 부관이 되기를 청한 사령관

주체74(1985)년 8월 이전 쏘련 원동군관구 사령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영광스럽게도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되였다.

담화과정에 그는 《천재적》, 《대과전서적》이라는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적식견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장군중의 장군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앉았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난 그는 제복을 정돈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 거수경례를 붙이며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이제부터 김정일장군, 당신의 부관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부관이 되는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뒤로 물러나 부관의 자리에 가앉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시며 앞에 나와앉으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저는 김정일장군의 부관입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 강국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우리 공화국은 세계무대에서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이것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말엽 우리 혁명은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련이은 붕괴를 기화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종말》을 떠들어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경제제재와 군사적압살책동에 매어달렸다.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사람들은 명토도 크지 않은 조선이 과연 이 횡포한 도전앞에서 자기의 존엄, 자기의 제도를 지켜낼수 있겠는가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날로 강화되는 경이적인 현실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하기에 오늘도 국제사회계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필승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분쇄해버리시였다,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사회주의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세계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선택당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군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이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조선의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민방위무력도 불패의 대오로 다지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였다. 미국의 무모한 핵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은 핵억제력까지 갖추었다. 하여 미국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군사력이 약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조선이 동방에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찬양하면서 조선을 당당하고 자주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김정일동지는 무적의 힘이고 승리의 기치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나이제리아 아싸라와주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놓으심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끝없이 강성번영해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치렬한 조미대결전의 전과정은 그이께서 확립하신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야말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한 가장 우월한 체계라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세계의 방방곡곡 그 어데서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강국건설의 세계적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터뜨리는 진보적인류의 경탄과 찬사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드시 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신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의 혁명위업은 오늘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쟁도발책동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ㄱ-610584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